

2018년 9월 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3일 연속 기술주 부진 여파로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67% 하락

기술주 하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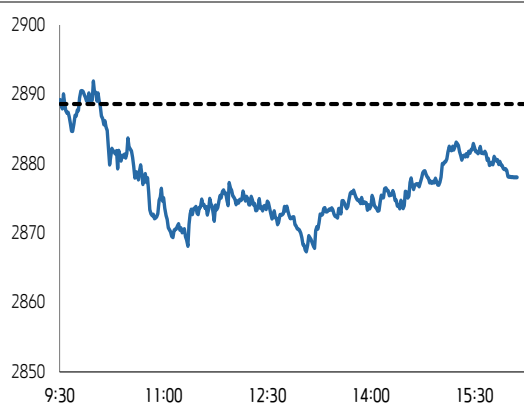
미 증시는 중국에 대한 관세 발효 여부에 주목하며 매물 출회. 특히 그동안 상승을 주도하던 대형 기술주 및 바이오 업종이 부진. 한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경제 상황이 좋고, 물가는 목표 수준에 있어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초가 올라간다” 라고 주장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으나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다우 +0.08%, 나스닥 -0.91%, S&P500 -0.36%, 러셀 2000 -0.76)

전일에 이어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비용 증가 우려감을 표명한 여파로 하락세 이어감. 더불어 미 법무장관이 이번 주 안에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논의한다고 발표한 점도 하락 요인. 한편,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지난 주 2 분기 IT 업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5%나 급증 했다고 발표했으나, 3 분기에는 전년 대비 14.2%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그러나 이마저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슈가 확대 되면서 중국 내 사업 부진으로 하향 조정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적 둔화 우려감이 높아진 점도 영향.

더불어 반도체 업종도 급락. KLA-Tencor(-9.72%) CFO가 Citi 2018 Global Technology 컨퍼런스에서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적다” 라고 언급하는 등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 더불어 모건스탠리도 “PC, 모바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최근 2 주 동안 악화 되었으며 재고가 실제로 쌓여 있다” 라고 주장한 이후 3 분기 반도체 가격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 노무라도 반도체 칩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악화 되었다고 주장. 이 여파로 마이크론(-9.87%) 등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7% 하락.

대체로 기술주는 무역분쟁 여파로 비용증가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와 규제 강화 등을 빌미로 차익 매물을 쏟아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287.61	-0.18	홍콩항셱	26,974.82	-0.99
KOSDAQ	815.18	-0.59	영국	7,318.96	-0.87
DOW	25,995.87	+0.08	독일	11,955.25	-0.71
NASDAQ	7,922.73	-0.91	프랑스	5,243.84	-0.31
S&P 500	2,878.05	-0.37	스페인	9,208.70	-1.00
상하이종합	2,691.59	-0.47	그리스	688.77	-1.05
일본	22,487.94	-0.41	이탈리아	20,527.22	-0.2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반도체 업종 부진

페이스북(-2.78%)과 트위터(-5.87%), 알파벳(-1.26%)은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규제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아마존(-1.83%)도 규제 강화 우려로 하락했다. 애플(-1.66%)은 12일 새로운 아이폰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이날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반면, 넷플릭스(+1.55%)는 RBC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KLA-Tencor(-9.72%)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급락 했다. AMAT(-5.25%), 램리서치(-6.97%) 등 장비 업종과 함께 마이크론(-9.87%), 브로드컴(-2.46%) 등 칩 제조업체들도 동반 하락 했다. 한편, 브로드컴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후 시간외로 4% 넘게 상승 중이다.

반스&노블(-8.08%)은 동일점포 매출이 6.1% 감소하는 등 실적 부진 여파로 하락 했다. 의류 유통업체인 랜즈앤드(-12.18%)도 적자 확대 및 동일점포 매출 부진으로 하락 했다. 세브론(-3.10%), 코노코필립스(-3.37%) 등 에너지주는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2.21%), 셀진(-2.49%), 바이오젠(-1.52%) 등 바이오업종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91%	대형 가치주 ETF	-0.28%
에너지섹터 ETF	-1.56%	중형 가치주 ETF	-0.39%
소매업체 ETF	-1.25%	소형 가치주 ETF	-0.54%
금융섹터 ETF	-0.46%	배당주 ETF	+0.01%
기술섹터 ETF	-0.73%	변동성 ETF	+2.99%
소셜 미디어업체 ETF	-1.53%	대형 성장주 ETF	-0.45%
인터넷업체 ETF	-0.75%	중형 성장주 ETF	-0.29%
리츠업체 ETF	+0.33%	소형 성장주 ETF	-0.84%
주택건설업체 ETF	-0.30%	신흥국 고배당 ETF	+0.09%
바이오섹터 ETF	-1.78%	신흥국 저변동성 ETF	-0.09%
헬스케어 ETF	0.00%	하이일드 ETF	0.00%
곡물 ETF	-0.23%	물가연동채 ETF	+0.09%
반도체 ETF	-2.59%	Long/short ETF	+0.8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35.06	-1.93%	-3.31%	-4.05%
소재	371.50	+0.18%	-1.53%	+0.01%
산업재	651.75	+0.33%	+0.19%	+1.90%
경기소비재	918.19	-0.33%	-1.42%	+1.93%
필수소비재	557.96	+0.22%	+0.90%	+1.44%
헬스케어	1,066.42	-0.00%	-0.57%	+2.39%
금융	469.17	-0.59%	-0.90%	-0.59%
IT	1,292.79	-0.81%	-2.76%	+0.02%
통신	154.65	+0.73%	-0.38%	+1.84%
유틸리티	275.68	+0.39%	+1.89%	+2.73%
부동산	208.48	+0.34%	-0.13%	+1.7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미국의 관세 발효를 앞두고 관망 예상

MSCI 한국 지수는 0.39% 하락 했으나, MSCI 신흥 지수는 0.10%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731 계약) 여파로 1.15pt 하락한 293.3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1.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에 이어 미 증시에서는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 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이 업황에 대한 부담으로 급락하는 등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이 많았다. 또한 국제유가도 수요 둔화 우려감 속에 하락한 점도 부담이다. 다만,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이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 발표한 이후 4% 넘게 상승 중이며 여타 반도체 업종들도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 된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2 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공청회 결과를 오늘 제출한다. 이후 즉각적인 관세발효를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우려감은 여전하다. 이를 감안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발효가 된다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증시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경제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도 부정적이다. 다만, 영향력이 크지 않은 일부 품목만 관세 발효 하거나, 일정만 발표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미국과 중국 정부의 협상 기대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안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무역대표부의 관세 발효 여부를 기다리며 관망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둔화

8 월 ADP 민간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고용자수는 전월(21 만 7 천건) 이나 예상치(18 만 2 천건)을 하회한 16 만 2 천 건에 그쳤다. 그러나 주간 고용자수는 지난주(21 만 3 천건) 보다 감소한 20 만 3 천 건으로 발표되며 여전히 견고한 고용시장의 움직임이 이어졌다.

미국 7 월 공장 수주는 전월 대비 0.8% 감소 했다. 변동성이 큰 운송을 제외한 수주는 전월 대비 2% 증가 했다. 내구재 수주는 1.7% 감소했다.

미국 8 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55.7) 보다 개선된 58.5 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수요 둔화 우려 속에 하락

국제유가는 EIA 주간 원유재고 보고서 발표 이후 하락 했다. 원유재고는 지난주(-260만 배럴)에 이어 430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발표 했으나, 가솔린이 지난주(160만 배럴 감소)와 달리 180만 배럴 증가 하고 정제유도 지난주(80만 배럴 감소)와 달리 310만 배럴 증가 하는 등 수요 부진 우려를 높이는 결과에 기인한다. 더불어 미국이 이르면 이날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우려감이 높아지며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위축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진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ADP 민간고용보고서 결과도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0.6%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독일 경제지표가 예상 보다 부진하자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였다. 한편, 신흥국 환율은 터키 리라화가 소폭 약세를, 브라질 헤알화는 0.5%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국가별 이슈에 따라 변화했다.

국제금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유입되며 하락 했다. 한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경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압박은 없다” 라며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또한 ADP 민간고용보고서에서 고용자수가 전월보다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고용지표 영향도 하락 요인이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무역분쟁 여파로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보험권에서 등락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81%, 철근도 2.69%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7.77	-1.38	-2.50	Dollar Index	95.005	-0.19	+0.30
브렌트유	76.50	-1.00	-1.95	EUR/USD	1.1626	-0.03	-0.39
금	1,204.30	+0.25	-0.59	USD/JPY	110.7	-0.74	-0.25
은	14,181	-0.27	-4.25	GBP/USD	1,2934	+0.22	-0.58
알루미늄	2,040.00	-1.35	-4.32	USD/CHF	0.9653	-0.66	-0.39
전기동	5,927.50	+0.96	-2.28	AUD/USD	0.72	+0.10	-0.87
아연	2,441.00	+0.89	-1.07	USD/CAD	1.3140	-0.29	+1.21
옥수수	366.25	+0.27	+2.73	USD/BRL	4,0767	-1.67	-1.78
밀	513.75	-1.53	-5.17	USD/CNH	6,8432	+0.01	-0.36
대두	839.25	+0.15	+0.39	USD/KRW	1124.00	+0.22	+1.39
커피	102.20	-1.54	-0.68	USD/KRW NDF 1M	1121.75	+0.25	+0.63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77	-2.55	+2.17	스페인	1.447	+0.20	-2.10
한국	2.275	+1.00	-9.00	포르투갈	1.873	+0.80	-3.90
일본	0.111	-0.40	0.00	그리스	4.386	-13.80	+4.30
독일	0.355	-2.50	+0.90	이탈리아	3.055	+12.60	-15.20